

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온라인 카페·SNS 등 '주의'

市전세사기대응TF 작년 6월 출범...올해 2월까지 220건 접수 강동전세·이자지원 중단 등...“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해야”

지난 2022년 2월 이사할 집을 알아 보던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광주 광산구 한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기간(2년) 대출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홍보글을 보고 입주했다. 홍보글대로 처음 6개월 동안 이자가 지원됐지만, 그 이후론 아무런 설명 없이 이자 지원이 안돼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재판부

가 나머지 1년6개월치의 이자를 지급 하라고 판결하면서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는 이자 지원을 재개했으나 한 달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A씨는 법정 다툼에 지친 가운데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며 남편과 갈라서게 됐다. A씨는 홍보글에 속아 이 같은 불행이 시작됐다고 후회 중이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장·허위 내용의 '불법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이들도 상당 수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광주시전세사기대응TF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광주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20건이다.

약 9개월 동안 월평균 24건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매매가가 전세보다 내려가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강동전세'부터 A씨처럼 시공사 또는 분양사에서 약속

했던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등 피해 사례는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2년간 전세대출 이자 지원', '계약 만료 시 전세금 100% 즉시 환급' 등 임차인을 '혹하게 만드는' 과장·허위 광고가 SNS와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에 개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명시돼 있으나 실제 인스타그램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 '광주 전세'라고 검색하자 일반 계정에서도 관련 광고글이 목격됐다.

이 중 '보증금 4천만으로 전세 살자'는 제목의 글쓴이와 상담해 본 결과 광고와는 달리 "1억6천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며 "대신 이자는 무료로 지원해 준다"는 답변을 내렸는데, 이 같은 수법은 '전형적인 사기'라는 게 단속 기관의 설명이다.

단속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SNS 등의 전세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게시물이 워낙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서진 못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상담 및 법적 도움을 주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는 "온라인이나 길거리에서 홍보글을 보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단속은 커녕 제대로 된 예방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허위 정보를 남발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은정기자



오월 기억 여행 5·18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2024 동구의 오월 기억여행'이 시작된 6일 오전 동구 전일빌딩245를 찾은 참가자들이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무기수, 20년만에 재심 앞두고 숨져

첫 재판 보름 전 급성백혈병으로 사망...재판은 결석 상태에서 진행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가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숨을 거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 무기수 장모(66)씨가 지난 2일 사망했다.

장씨는 오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재심재판 출석을 위해 지난 달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됐으나 내부 검진에서 '급성백혈병'이 발견됐다. 이후 장씨는 지역 한 병원으로 이송,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

시30분께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물탱크 트럭을 고의로 명검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부인 김모(당시 4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3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장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전직 경찰과 재심 전문 변호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는데 장씨가 병원에서 사망한 당일에도 내려졌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없어 종결 처리되는 일반 재판과 달리 재심 재판인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은 장씨 사망에도 결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고인에게 재판 절차를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몰랐다"며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씨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다"고 SNS에 추모글을 올렸다. /안재영기자

'음주운전 망신' 광주경찰청 특별경보 발령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3월8일~4월11일)에 직위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터진 광주경찰청이 자체적인 특별경보를 내리며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섰다.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 광주청 제1호 특별경보를 오는 5월20일까지 발령했다.

이는 지난 3일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추돌사고를 내 음주운전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청은 총선을 앞두고 내려진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 지정 분위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직원 음주운전 적발이 계속됐다.

지난 1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지구대원이 적발돼 해

임했고, 3월에는 또 다른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추돌사고까지 내 해임됐다.

술 마시고 전통키보드를 타던 직원도 단속된 사례까지 더하면 광주경찰청 관내에서 올해에만 총 4건의 직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나왔다.

광주청은 총선과 5·18 기념일로 이어지는 기간 음주운전에 관해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경보를 발령하고, 음주 모임 자체 당부와 관리자 면담 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등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조직에 대한 시민 불신을 초래하고, 동료들의 사기·자긍심 저하

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 의무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기자

나주 돈사서 불...돼지 650마리 소사

나주 한 축산농가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축사가 전소되고 돼지가 폐사했다.

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20분께 나주시 봉황면 한 축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축사 7개 동 중 3개 동(88㎡)이 전소됐으며 돼지 650마리가 폐사했다. 2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4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돈사 내 전기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재영기자

'임금체납 업체 비방글' 굴삭기 기사, 명예훼손 '무죄'

항소심 재판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공공 이익 위한 것"

굴삭기 기사가 '퇴직 업체가 임금을 체납했다'는 비방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중장비 대여업체 B사 소속으로 일하다 퇴사한 뒤 굴삭기 기사들의 정보공유처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B사를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사는 결제 관계와 뒤끝이 안 좋으니 조심들 하시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A씨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광주지방고용노동

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노동청은 B사가 A씨의 급여를 근무 기간에 따라 일할로 지급해 체불 임금이 없다고 종결 처리하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1·2심 재판부는 "체불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사가 A씨 근무 기간을 하루씩 계산해 월급 48만원 중 200만원만 지급한 것은, A씨 입장에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정산 합의 없이 월급의 일부만 받아부당한 결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봤다.

A씨로서는 B사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결제 관계와 뒤끝이 좋지 않다'는 글은 거짓이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1·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안재영기자

60 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월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